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L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소방청과 협업해 네 차례의 전기차 화재 실증 실험도 진행하는 등 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번 토론회는 LH가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 산업계, 학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토론에 앞서 LH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실험 및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자유토론은 LH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